

# ‘학교 대신 쇼핑몰’ 친환경농산물 새 판로 찾다

남도장터 공동구매 캠페인·31사단 급식 대체 등 291t 소비  
정부·지자체·농협 등 판로 찾기 나서며 농산물 가격 회복  
전남농협꾸러미 쇼핑몰·NH친꾸 개설키...온라인 구매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온라인 쇼핑몰과 배송 판매를 만나 소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의 대체 판로 확보 노력도 있었지만 농산물 안전에 대한 민간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최근 발표한 현안분석 보고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대응과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기준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대체 판로 확보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한 실적은 291t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전남 농산물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공동구매 캠페인을 벌이거나,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육군 제31보병사단, 위메프 등과 손잡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같은 기간 동안 지자체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은 전남 291t, 경기 105.2t, 충북·충남 156.3t, 경북 40.4t, 경남 37t, 강원 3t 등 총 632.9t이다.

전남지역 지원 실적은 전체의 46% 정도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 현황을 공동구매(547.5t), 판촉행사(579.7t), 대체 판로 지원(383t), 자가가격리자 지원(179.6t) 등 총 1689.7t으로 집계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해 개학 연기로 인한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이 중단될 때 재정을 하지 못해 처리가 시급한 친환경농산물을 51개 품목으로, 1주에 약 203t 수준이 소비처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 물량이 일반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지난 3월 하순까지 급격히 하락했고, 일부는 일반 농산물 가격 수준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대체 판로를 찾으려는 지자체·농협 등의 노력과 소비자 인식 변화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4월 초순부터 상승했고, 지난 5월 중순 이후 평년 대비 가격을 회복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펼치는 ‘친환경농



남도장터 상품 포인트로 구매 가능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은 ‘나들이 꾸러미’.  
<농협 전남본부 제공>

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농협 호남권친환경종합물류센터는 지난 3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첫 택배를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나주, 순천, 장성, 신안, 해남 등 5개 시·군 지역 임산부에 1년간 공급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수축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올해는 순천 1928명, 나주 995명, 해남 597명, 장성 385명, 신안 22명 등 4127명의 임산부가 꾸러미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을 활용해 1인당 4만원 상당을 남도장터 상품구매 포인트로 지급했다.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가운데 삼겹살, 찜새우, 상추, 깻잎, 후식용 방울토마토 등으로 구성된 ‘나들이꾸러미’가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초에는 ‘전남농협꾸러미 쇼핑몰’(nhjeonnammall.co.kr)과 모바일 앱 ‘NH친꾸’가 개설돼 온라인 판로도 넓혔다.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한 달 1회 3만9000원 한도로,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30일까지 연회원 가입 고객에게 친환경 에코백과 구매포인트 3000원을 제공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꾸러미 쇼핑몰이 소비자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령 농가에 이동 분무기 지원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 광산구는 최근 고령·여수 조합원 농가에 방제용 이동식 분무기 176대를 지원했다. 이 분무기는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배터리 전력으로 고압분사가 가능하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전남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 환급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탈퇴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탈퇴 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지분환급 청구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 전화·현시 방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7일까지 나흘 동안 시군지부·지역농협 담당자에게 안내 권역별 순회를 지도했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종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발송된 탈

퇴조합원들에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동 주소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출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했던 지분금 환급을 위한 탈퇴 조합원은 농협포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해당일 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과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 조합 지점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환급금 안내 조치로 고객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추농가 수확 ‘구슬땀’ 농협 전남본부 일손돕기

하반기 농가 돕기 동참 당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 전남본부와 영광군지부 직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은 지난 17일 영광군 서면면 고추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한 시민들도 일손을 보탤다.

1365포털 자원봉사는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증명서가 발급된다. 농협은 (사)농촌사랑운동본부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7일 영광 고추농가를 찾아 수확을 돕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해외 농식품 바이어 정보 무료로 받으세요

aT, BMS 사이트 운영

해외 농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무료 해외식품 구매(바이어) 정보 사이트가 운영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aT BMS 사이트(bms.at.or.kr)를 통해 해외식품 바이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희망 국가별 바이어알선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바이어 정보를 무료로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수출업체가 바이어 정보를 신청하면, aT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기업자료(DB)와 해외 18개국 관세청 무역정보를 활용해 바이어 정보를 선별한다. 이후 유효성 검사를 거쳐 정보를 신청사에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바이어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홈페이지, 주요 취급품목, 신용

정보 등이다.

aT는 올해부터 온라인화상상담 서비스를 개시해 BMS로 발굴한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화상상담 서비스는 최신식 온라인상담실과 통역원을 제공하며, 해당 홈페이지(global.a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MS서비스는 지난해 총 235개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7779개사 677건 정보를 제공했다.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지난해 한 주류 수출기업은 BMS를 통해 소개받은 싱가포르 바이어와 1만9000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어 정보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활동이 제한돼 현지 바이어 정보수집이 어려운 여건에서 aT BMS의 무료 바이어 알선 서비스가 농식품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